

사무엘상 23. 다윗의 방랑생활과 놉을 전멸시킨 사울 (삼상 22 장 1-23 절)

들어가기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서 쫓겨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가족들과 환란을 당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 들면서 다윗은 갑작스럽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기약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모압 땅으로 건너가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모압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지자 갓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 동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똑바로 알리지 않은 신하들을 책망하였고,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도액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려 편파적인 재판을 내린 뒤, 군사들을 도액과 함께 놉으로 보내어 무차별적인 학살을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목숨을 건진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도망가 알렸고,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아비아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1. ‘아둘람’ 굴로 피한 다윗은 ‘환란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빛진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5 절)

- 1)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아람굴로 피신하였습니다.
 - ✧ ‘아둘람’이란 말은 '피난처', '보호처'란 뜻으로, 그 위치는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 곧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음.
 - ✧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곳이 유다의 영토였으나, 당시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함. (Hertzberg, Stoebe)
 - ✧ 다윗은 이곳에서 시편 142 편을 기록하였음. (예명: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 2)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습니다.
 - ✧ 아마도 사울의 보복을 피해 온 가족이 이곳으로 도피하였을 것. (Keil, Smith, Clericus).
- 3) 그런데 이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 ① ‘환란 당한 자’ - 당시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추측.
 - ② ‘빛진 자’ - 이들은 아마도 사울 정권의 부당한 세정과 당시 강압적인 고리대금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로 추측. (Fay, Smith)
 - ③ ‘마음이 원통한 자’ - 이들은 사울 정권의 비도덕성과 비종교성 등으로 인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던 사람들로 추측.
 - ④ 모여든 인원은 총 400 명에 이르렀고, 다윗은 갑작스럽게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음!

■ 주목할 것! - 이들 중에는 선지자와 용사들, 그리고 지혜자들이 많았다는 사실!

- ☆ 예 - 5 절에 등장하는 선지자 갓, (역대상 12:1-18 참고)
- ☆ 곧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점점 더 타락하고 쇠퇴해가던 사울 왕국에서 침묵하고 안주하기 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지도자로 부름 받은 다윗과 더불어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여 스스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항상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4) 다윗은 자신의 부모와 친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왕에게 찾아가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 ☆ 아마 자신과 함께 한 숫자가 많아져 더 이상 아둘람 굴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것.

■ 그런데 그럼 왜 다윗은 아둘람 굴을 떠나 모압 왕에게로 갔을까?

- ① 다윗의 증조모인 룯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 (룯 1:22).
 - 곧 다윗은 혈연적으로 모압 민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었기에 모압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는 추측.
- ② 당시 모압은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에 사울의 적이며 경쟁자인 다윗을 후원하는 것이 모압 왕에게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 (삼상 14 장 47 절).
- ③ 지리적으로도 모압은 사해 건너편으로 사울이 쉽게 쫓아올 생각을 못하였고, 다윗에게는 나중에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기에 적당한 거리요, 요새라고 판단했기 때문.

■ 특별히 3 절을 주목해 볼 것!

다윗은 모압 왕에서 자신의 부모와 친족을 ‘하나님이 나를...어떻게 하실 것을...알기까지’ 모압 왕에게 보호를 부탁했다는 것!

곧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분명히 자신의 앞길을 밝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5) 그런데 이때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충고하였습니다.

■ 참고 : 선지자 ‘갓’

- ☆ 이름의 뜻은 ‘행운’
- ☆ 성경학자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선지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시했음.
 - 긍정적 견해: 사무엘이 지도하는 선지학교 출신으로서, 사무엘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해석..(Smith, Keil),
- ☆ 오늘부터 선지자 ‘갓’은 다윗이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의 조연자 역할을 감당하였고, 이후,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다윗의 궁에서 함께 지내며,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삼하 24:11-19),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다윗과 일생을 함께 함. (대상 29:29).

■ 주목할 것! :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는 선지자 ‘갓’ 의 충고!

- 이와 같은 명령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던 사건과 신학적으로 동일선상 있다고 생각!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땅 가나안을 지켜야 했듯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어떠한 위험과 역경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결국 다윗은 갓의 충고를 받아들여 유다로 돌아온 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으며(28-30 장), 조금씩 조금씩 왕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6) 다윗은 선지자 갓의 충고를 받아들여 즉시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 헤렛 수풀에 거하였습니다.

- ✧ 참고: '헤렛'은 오늘날 '카라스'(Kharas)와 동일한 지역으로, 위치는 헤브론 남서쪽 약 8-9km 지점으로 '그일라'와 인접한 지역.

2. 사울은 다윗이 유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책망하였습니다. (6-8 절)

1) 특별히 6-7 절을 주목해 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나? _____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 당시 사울의 신하들은 다 사울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란 사실!

- ① 사울은 편중된 인사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단합에 실패. (Smith),
- ② ‘밭과 포도원을 주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자신과 나라에 충성과 봉사를 요구했다는 것.
- ③ 나아가 그가 나누어 준 대부분의 보상들은 모두 타 지파 백성들에게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탈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
- ④ 곧 이런 사울의 정책은 사울 왕국의 한계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는 오래전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증명.
 - ‘너희가 바라는 왕은 너희들의 토지를 강제로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 (삼상 8 장 14 절)

2) 사울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자신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한 신하들을 책망하였습니다.

- 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한 맹세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
- ② 사울 자신을 위해서는 슬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 ③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과 손잡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알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란 것

곧 사울은 ‘악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악하게 보인다’는 잠언(29:12)의 가르침처럼, 점점 더 권력욕에 사로잡혀 이제는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9-19 절)

1) 그럼 도액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우선 도액의 고발 내용을 주목해 보자! - 10 절 참고

- ‘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0 절)

- 분명 도액의 말은 진실!

->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하는 도액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면, 그의 고백은 전혀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고백이 아닐까? 아마도 사울을 기쁘게 하여 인정을 받고 출세를 위해서 한 고발이 아니었을까?

■ 또한 제사장 아히멜렉과 관련한 도액의 고발에서 빠진 내용을 주목!

-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왔다면 도와달라고 청한 것!

- 만약 도액이 이 말도 사울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었다면, 어쩌면 놉 성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 성경은 이런 도액에 대해 악한 인간의 혀가 지닌 간사성과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 준 대표적인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음. (시 52:3-5; 약 3:2-6).

혹시 우리도 살면서 진리와 진실을 말한다는 명분아래 그저 우리 안에 숨은 이기적인 마음과 이익만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제사장 아히멜렉은 도액의 모함과 사울의 정죄에 담대하게 자신이 무죄함을 해명했습니다. (11-16 절)

①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충실한 자이고,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도 존귀한 자 -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운 것은 당연한 것!

②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닐뿐더러 제사장으로써 해야 할 마땅한 직무를 감당한 것!

3) 이에 분노한 사울은 호위병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다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 ✧ 우선 죽여야 하는 대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와 제사장들이었기에!
 - ✧ 더군다나 이들에 대한 사울의 재판이 완전한 독단과 조작에 의한 잘못된 것임을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

- 참고 : 율법에서는 어떤 판결이든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는데, 사울은 이런 율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단 한 사람 그것도 자신의 심복이었던 도엑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재판하여 죽였다는 것. (신 19:15; 민 35:30)

- 그러자 사울은 도엑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가 놈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 도엑은 즉시 놈으로 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던 85명의 제사장을 비롯해 그 성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임!
 - ✧ 참고로 학자들은 놈을 완전히 진멸시킨 이런 도엑의 행동은 결코 도엑 스스로가 독단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
 - 분명히 성경에 다 소개되지 않은 사울의 또 다른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

4. 제사장들의 죽음과 놈의 비극을 전해 들은 다윗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20-23 절)

- 1) 참다운 신앙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지고, 또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 ✧ 다윗은 자신이 놈을 방문한 것과 특히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을 것!
 - ✧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고백했다는 것. (시편 32 편 5 절).
 - ✧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자신과 함께 하면 끝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중보기도 나눔.